

# 전남대 ‘에듀 생태계’ 조성해 글로벌 대학 실현한다

경북대와 달빛동맹 연합 모델  
전주기 학습콘텐츠 무료 제공  
기초학문 생태보존 프로젝트도

정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2024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전남대학교가 예비 선정됐다.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도 함께 해결하고자 참신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게 주요했다.

특히 대학의 벽을 뛰어넘는 초광역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고급 인재배출은 물론 교양시민 양성과 기초·보호 학문을 이끌 신진학자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돋보인다. 연구와 교육의 공간을 지역 사회, 나아가 타 광역자치지역에까지 개방해 함께 호흡하는 것이 미래 시대에 맞는 고등교육의 방향으로 읽히기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1+1 과정, 공동학위제 개설

전남대는 ‘지식 공유 확산을 통한 거점국립대의 책무 완성’을 과제로 잡고, 경북대와 ‘달빛동맹 연합대학 공동학위 운영’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남부거대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 간 달빛동맹 강화 및 상호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거점국립대 간 연합체계의 모델 개발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계획은 달빛상생 AI 융합전공을 2+1+1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전남대 2년+타 대학 1년+현장연계 교육 1년 후 취업할 수 있는 단계별 맞춤형 경력개발 로드맵이다.

또 경북대와의 연합대학 공동학위제 및 학사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3+1 혹은 2+2 학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공동학위를 수여함으로써 대학 간 장벽을 넘는 부·복수 전공이 가능하다. 영호남 문화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자체와 협업체 교류 학생들의 전주 여건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공동 학위제도(3+1, 2+2모델)  
연합대학간 부/복수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달빛 장학제도 신설

AI모빌리티(광주, 전남),  
AI헬스케어(대구, 경북)인재양성  
전남대, 경북대 교차 수학  
인문학, 자연과학분야  
Young Scholars 트랙 필수 교류

지자체 연계 달빛청년생활쿠폰 발급  
달빛 학사ID 발급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달빛청년 정기문화탐방

남부 거대 경제권 연대 강화  
달빛 철도 건설로 지속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

10만 대학 학습자

지역 대학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운영  
고급 교양 수준의 양질의 콘텐츠 제공  
대학 전공 기초학력 증진

15만 청소년 학습자

핵심교과 기초능력 신장  
청소년 인문학 감수성 증진  
고교학점제 대비

5만 산업체 학습자

산업체 인력 재교육 기회 확대  
산업 수요자 중심 맞춤형  
콘텐츠 개발

20만 성인 학습자

무상 온라인 평생교육  
교양시민을 위한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프로그램

전남대학교의 ‘에듀 생태계’ 개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클러스터 구축과 활성화’가 이뤄진다. 두 대학이 연구대학으로의 전환과 규모의 학문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가령 전남대의 호남학과 경북대의 영남학 분야에서 공동 교육 및 연구가 이뤄지는 등 초광역 행정 공간을 뛰어넘는 초광역 교육생태계의 초석이 되고, 두 지역의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 ●교양 시민 50만 양성

2023년 기준 국내 대학 진학률이 72.8%를 기록하면서 점차 대학교육이 엘리트 육성형에서 보편 교육형으로 전환되

고 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는 추세인 만큼 전남대는 교양 교육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해 교양 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대는 이미 구축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해 교양 시민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 초·중·고교생, 대학생, 산업체 근로자,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할 생각이다.

전남대는 현재 2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광주·전남 원격교육센터의 권역별 주관대학과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광주

전남지역혁신플랫폼의 주관대학으로서 두 개의 학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개방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하면 교양 시민 50만명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5만 산업체 학습자, 10만 대학 학습자, 15만 청소년 학습자, 20만 성인 학습자에게 각각의 수준과 나이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 무료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기초학문 신진학자 300명 육성

전남대는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기초학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기초학문 생태보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풍부한 학문생태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당찬 전략을 세웠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고,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인문, 사회, 자연대학 등 기초학문 고사 위기 속에 이를 지키고 살려낼 신진학자를 안정적으로 조기에 발굴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 전주기 중장기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다. 학·석사 5년 트랙(전역장학)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초학문 모집정원의 10%(75명)를 선발한 후, 매 학년 75명을 추가 선발해 4년 차에 300명을 확보한다. 5년 차 이후에는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해 전역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기 양성 모델의 최종 단계로, 초중고교에서 CNU LMS를 통해 학습한 기초학문을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다.

전남대의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인문사회, 기초과학 관련 중점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초학문분야 연구의 새로운 선도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문화, 교육, 산업체 등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할 지역사회의 싱크탱크 역할도 기대해 볼 만하다.

전남대 관계자는 “공동학위제, 교양시민 양성, 기초학문 신진학자 육성을 통해 거점국립대로서의 책무를 완성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에듀 생태계 구현 모델이 ‘글로벌대학30’을 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 “지역 위한 교육 생태계 구축할 것”

이명규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달빛동맹으로 지역 인재 유출 방지  
50만 시민에게 교양 학습 제공해  
위기의 기초학문…연구자 발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의 교육까지 책임지는 국립대의 책무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명규 전남대학교 교무처장이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전략으로 ‘에듀 생태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대학교는 초광역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대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까지 전남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달빛동맹 연합대학 공동학위 운영 △교양시민 50만 양성 △기초·보호학문 지원 및 강화를 토대로 에듀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달빛동맹 연합대학 학위 과정은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전남대의 첫 번째 전략 중 하나다.

이 처장은 “달빛동맹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2013년 3월 상호 간의 지역경제를 고리로 한 상생 사업으로 시작됐다. 전남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경북대와 함께 달빛동맹의 개념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두 대학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려 한다”며 “현재 전남대는 순천대, 조선대와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학과에 국한돼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경북대와 거점국립대 간 연합 학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처장은 “특히 ‘취업형 공동학위제’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학-지역-산업의 상생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광주의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경북대 학생들이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의 섬유 관련 첨단소재 산업을 전남대 학생들이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명규 전남대학교 교무처장이 글로벌대학30을 위한 전략인 ‘에듀 생태계’를 설명하고 있다.

덧붙였다.

또한 전남대가 50만명의 교양 시민을 양성해 내겠다는 목표에 대해 이 처장은 “전남대는 이미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최첨단 공동교육 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웹 방화벽 시스템, 백업 시스템 등을 잘 구축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광주·전남 15개 대학은 이미 원격을 통한 공동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 가입 회원이 3000명을 넘어섰고, 관련 콘텐츠도 6000개 이상이 있

다. 이를 통해 전남대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내 15만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대학의 학습과도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이야기했다.

이 처장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10만명과 지역 청소년 15만명,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5만명과 20만명의 성인 학습자에게 질 높은 교육콘텐츠로 무료 제공한다면 50만명의 교양 시민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풍부한 학문생태계를 활용해 기초·보호학문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이 처장의 설명이다.

이 처장은 “첨단과학기술과 물질문명만으로는 인간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인문, 사회, 철학, 그리고 기초과학 이야말로 인간이 사고(思考)하고 사유(思惟)하는 깊이를 더욱 심화시켜주고, 생명존중, 자유, 평화, 정의, 배려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며 “최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에 필요한 신진학자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발굴, 육성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거점국립대의 책무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필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